

명파리를 세계적 평화관광지로

명파 DMZ평화마을 사업 주민설명회 ... 2020년까지 총 743억원 투입



지난달 26일 현내면 명파리에서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고성군은 지난달 26일 현내면 명파리 148-1번지 일원 119,313㎡ 부지에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 단위 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명파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는 평화마을 조성에 대한 배경과 목적,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은 2008년 4월 17일 용역에 착수했으며 2010년 7월 20일 공람과 공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1년 7월 20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조건부 의결이 됐다.

이어 2011년 9월 19일 지역주민들

의 숙원인 조성사업이 4여년 만에 고성 군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확정했다.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은 천혜의 청정자연환경과 연간 135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통일전망대가 있는 등 세계 유일의 분단 체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규제와 군사적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

이에 따라 낙후된 명파지역을 동서 DMZ 관광의 시발점이자 동해안권 남북 관광벨트의 관광거점지로 조성한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큰 그림이다.

구체적으로는 방문객의 숙박·음식·쇼핑 등의 관광서비스 소비공간인 숙박 시설과 먹거리촌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도에서 DMZ 박물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으로 추진한다.

또 향토음식 체험과 다양한 교통수단 체험, 한국적 전통숙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문화 체험의 장으로 명파역 원 복원지구에 역원 마을 먹거리촌을 조성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동북단의 통일전망대 등으로 가는 길목인 명파리에 국토 횡단의 시종착점, 남북한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북한 민속마을, PLZ국토횡단 웰컴센터를 조성하는 평화·생명지대(PLZ) 광역 관광개발계획도 추진된다.

명파 DMZ평화마을 사업은 2020년까지 국비 285억2백만원, 도비 85억4천7백만원, 군비 211억3천5백만원, 민자 161억1천6백만원 등 총사업비 743억원이 투입된다. 박승근 기자

거진읍 현내면

▶거진읍 시민기자
김일용(dragon4858@hanmail.net)
장공순(messsucher@hanmail.net)
▶현내면 시민기자
박선애(sarang365@nate.com)

※거진·현내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681-1666>

거진용역

- ◇전문용역개발
- ◇준공청소, 철거전문(이삿짐)
- ◇집수리 전문
- ◇철근·목수·미장 대기
- ◇여관·관광서 청소 칠
- ◇방수·집중축·개축

인부 항시 대기
일하실 분 문의

대표 강안근

☎682-1283 / 018-244-1283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8리 3번

부모님 손 잡고 즐거운 추억 남겨

명파 가을한마당 큰잔치

지난달 27일 명파초등학교(교장 전현철) 운동장에서는 명파 가을한마당 큰잔치가 열렸다.

명파 가을한마당 큰잔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경기를 마련, 지역 어르신 을 비롯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내가 달리기 양' 을 시작으로 '주사위야 날 살려라' 등 총 21개의 경기를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주민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부모님과 손 잡고 함께한 경기가 많아 뜻깊은 시간이 됐다.

초등학교의 마지막 운동회가 되는 6학년 전민학



어린이는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를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경기를 많이 해서 좋고, 부모님이 나보다 더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다"고 했다.

이번 가을 한마당 큰잔치를 통해 아동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혼연일체 되어 서로 협력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박선애 시민기자



거진항서 해양오염사고 초동조치 훈련

속초해양경찰서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거진항에서는 속초해양경찰서가 주관한 해양오염사고 초동조치 훈련이 실시됐다.

속초해경, 해양환경관리공단, 거진 민간자율방재

대, 대진 민간자율방재단 등 4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훈련에서는 출·입항 선박의 충돌로 병커 C유 10㎏가 유출되는 사고를 가상해 사고선박 파공부위 응급 봉쇄 조치 등의 훈련이 펼쳐졌다. 최광호 기자